

현대 여성시인들의 시와 가톨릭시즘*

김 호 중**

1. 머리말
2. 우리 현대시와 가톨릭시즘
 - 1) 가톨릭시즘 수용의 사적 개관
 - 2) 가톨릭시의 정의
3. 여성시인들의 시와 가톨릭시즘
 - 1) 홍윤숙의 시와 긍정적인 생사관
 - 2) 김후란의 시와 고통의 의미
 - 3) 유안진의 시와 이웃사랑
4. 맺음말

* 이 논문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연구비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대구가톨릭대학교 국문과 교수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한국의 여성시인들 가운데 홍윤숙, 김후란, 유안진의 작품을 종교적인 차원에서 논의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논지를 집약하였다. 이 세 시인들은 가톨릭 신앙의 깊은 경지에 도달했을 때 얻게 되는 감동적 순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독자로 하여금 이것을 간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영혼의 정화를 느끼게 하고 독자들의 신앙 유무와 무관하게 시공을 초월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유를 시로써 해명해 주기도 한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경험에 속하는 신앙생활 특히 교회를 통한 종교생활은 교리에 비추어 자아성찰을 꾀하게 하고 이것을 문학이 반영하게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여성시인들은 시로써 생활과 가톨릭 신앙과 적극적인 조화를 이루어가는 가톨릭적 삶과 죽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들의 시가 가톨릭 예술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세계 즉 영원 초월적인 실재 내용을 가시적 예술형식으로 표현하는 데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들의 시는 독자 위에 있는 시로서 의미가 있다. 독자 위에 있는 시는 일상 삶으로부터 초월해 있는 문제들에 관심을 갖는 시로서 삶의 존재 근거, 삶이 지향해야 될 방향, 어떤 절대 신념 등을 추구하는 시이기 때문에 가톨릭적 시가 추구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이들의 시는 보다 본원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에 다다르려고 하므로 존재 탐구 내지 형이상학을 지향하는 시가 된다.

그런데 시에 종교적인 사상과 깊이를 담으려 할 때 흔히 시는 관념시에 머물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들은 그들 특유의 표현기법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쓴 가톨릭 시는 사상의 깊이를 확보하고 있고 자신들의 내면세계를 기도문의 형식을 빌어 솔직히 토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톨릭적 소재를 택함으로써 소재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측면에서 한국 여성시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고 있다.

핵심어 : 제삼의 세계, 가톨릭의식, 성모마리아, 독자 위에 있는 시

1. 머리말

비교문학의 영역 가운데 문학과 종교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중요한 영역으로 취급되어 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폴 딜리히 Dilich가 “종교는 인간 정신 생활의 모든 기능의 심층에서라면 어디나 있을 집이 있다”¹⁾고 언급한 바 있듯이 인간에게는 종교가 필요한 것이 분명하지만 종교의 선택은 각자의 자유에 속한다. 그런데 신앙은 자아를 절대시하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아의 한계를 인식하게 한다.

한편, 과학기술이 낳은 고도의 문화나 지식문명이 달성한 고수준의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은 현대인들은 종교에 관해서는 물론 특히 문학과의 관련 아래 종교를 논하는 일에는 비교적 덜 적극적이다. 문학은 종교 속에서 많은 것을 섭취하여 풍요한 세계를 형성해 왔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문화인이라도 종교와 함께 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²⁾고 한 엘리엇 T. S. Eliot의 언급은 주목할 만하며 또한 도모쥬의 다음의 주장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第三의 세계〉에서 인간을 포착하여 묘사하는 데에 그리스도교 작가의 유니크한 관점이 있다. 그리스도교 작가가 타락한 인간이나 죄로 더럽혀진 인간을 묘사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작중인물의 구원의 빛이 어디서 오는가 - 말하자면 불가불 〈第三의 세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

그런데 사람에 따라 종교에 관한 시각은 달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종교는 사람들에게 인생 경험을 다양하게 하여 폭넓은 삶을 열어 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티즘이 서구 자본

1) 폴 딜리히, 김경수 역, 『문화의 신학』(대한기독교서회, 1981), p.14.

2) T.S. Eliot, *Notes towards the definition of culture*(Faber & Faber, 1962), p.15.

3) 다게다 도모쥬, 이석현 역, 『문학과 인생』(성바오르출판사, 1980), p.130.

주의의 정신적 기저라고 지적한 막스베버Max Weber의 종교사회학적 분석을 빌릴 것도 없이 종교가 그 시대의 가치관과 윤리관을 지배해 왔다”⁴⁾는 것은 자명하다.

문학을 종교와의 연관 아래 운운하면 색다른 주목을 받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종교와 문학은 별개의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이거나 또는 문학과 종교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진실인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어쨌든 현대인들은 문학과 종교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며 그만큼 거리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현대인은 종교가 묵은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유럽의 중세나 동아시아의 중세처럼 종교가 권위를 가지던 시대는 윤리, 질서, 인생관 등이 하나의 종교에 의하여 통일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전혀 회의적이지 않았다. 과학기술이 낳은 문화나 지식 문명이 달성한 고급 수준의 교육환경에서 성장한 현대인들은 중세기는 이미 옛날이고 너무 유치하고 단순한 시대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종교에 집착하여 이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교양이 없고 우매한 것으로 보는 경향도 없지 않다.

근세에 이르러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를 내세우면서 자아에 눈을 뜨게 되고 신을 부정하며 “나는 절대자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신앙이란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며 자아를 절대시하는 현대인이 자아의 한계를 인식해야 함을 시사한다.

종교와 문학이 분리된 것은 최근 일세기 동안의 일이고 그 이전에 이들은 합일한 상태였다. 그러던 것이 자아를 절대시하고 합리적임을 지상의 것으로 삼는 현대문명에 젖어들면서 문학과 종교는 점차 서로 불일치하기 시작했다. 작가들은 자신을 신과 동격인 창조자로 여기거나 간혹 우

4) 박철희, 『서정과 인식』(이우출판사, 1981), p.345.

월감에 빠지기도 한 것이다.

문학의 진정한 목표는 인생 혹은 인간의 진실을 새기고 그 뒤에 하느님의 구원의 손길이 뻗어지는 것에 대한 희망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데 있다. 한 작가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는 작중인물의 구원문제를 취급하는 데서 드러난다.

그런데 주목되는 사실은 최근 미국에서 아무리 과학만능시대라 해도 인간 생명에 관한 문제만은 과학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사람들의 종교에 관한 관심이 매우 깊어졌으며 종교서적 독서율이 16.7%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종교는 역사와 사회의 발전과는 무관하게 인간학과 밀접한 연관을 맺지 않을 수 없으며 문학을 논의하면서 종교를 도외시킬 수는 없다.

우리 현대시사에서 천주교가 이입되어 문학사상에 끼친 영향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한국 교회사 초기의 천주가사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다. 「思鄕歌」를 비롯한 천주가사들은 여자 교우들이 두레 길쌈방에서 민요풍으로 부르던 것이고 천주가사에서 가려 뽑은 성가 가사들이 『조선어 성가』(서울교구, 1924)에 악보와 더불어 실려 있기도 하다.

정지용은 한국천주교회 월간잡지인 『카톨릭청년』의 편집장으로서 자신의 세례명 프란치스코로 발표한 「그대들 돌아오시니」(『경향잡지』, 1946. 10)를 비롯하여 다수의 신앙시를 썼으며 그후 노천명, 김남조, 구상, 홍윤숙 등 현대시인들에 이르기까지 현대시의 정신으로서 이들의 시에 투영된 가톨릭적 경험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문학은 현실을 풀어야 할 수수께끼, 새롭게 구성해야 할 혼돈, 의미를 부여해야 할 미지의 것으로 보는 특징이 있으며 세계와 인간의 창조이며 항상 새로이 문제되어야 할 창조이다. 그리고 그 창조는 우주의 신비와 더불어 인간 조건의 비극성이 존속하는 한 끊임없이 추구될 창조이며 때로는 세계의 부조리와 관념의 절망을 넘어서는 유일한 인간적 기적의 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창조적 세계 안에 철학을 맞아들인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여성 시인들은 각기 자신의 시세계를 독특하게 창조하여 한국현대시사상 그 위상을 당당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시인들이다. 그런데 이들의 시 안에 가톨릭 사상을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시세계를 확보한 것도 매우 중시해야 할 일인데, 아직까지 이들을 한 자리에 모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정신적인 면의 황폐화로 심각한 상황에 이른 오늘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의 시를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의 버팀목이 될 훌륭한 시편들을 찾아 읽고 그 가치를 헤아려 음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가톨릭시선』(들숨날숨, 2000)⁵⁾에 수록된 한국 여류시인들 가운데 한국시문학사상 그 위상이 확고하고 미학성이 뛰어난 작품을 창작한 홍윤숙, 김후란, 유안진의 시를 본고의 연구대상으로 삼아 문학과 종교의 차원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까닭은 이들은 연령별로 보아 60대에서 70대 후반에 이르는 시인들로서 삶의 원숙한 경지에 도달하여 자신의 삶을 가톨릭적 신앙 안에서 성찰하는 가운데 독특한 자신의 삶의 철학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가톨릭의 핵심이라 할 삶과 죽음, 고통, 이웃사랑에 대한 의미를 시의 주제로써 다루어 독자들을 일깨우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비가 크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설정한 위의 주제는 가톨릭적 의미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 본고의 연구범위를 『한국가톨릭시선』으로 한정하되, 세 시인을 동시에 다루게 되었으므로 지면의 제한 때문에 분석대상 작품을 한 두 편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따라서 이들을 개별적으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다수의 작품에 깊이 천착하여 세밀히 분석해야 하는 일은 앞으로의 과제다.

5) 본고의 연구대상으로 삼은 홍윤숙은 「주일」, 「내 키는 너무 작아」, 「내가 떠나는 날은」, 김후란은 「이 손을 잡아 주소서」, 「내 작은 기도」, 유안진은 「성당 가는 길에서」, 「아기별을 찾아서」를 발표하고 있다.

2. 우리 현대시와 가톨릭시즘

1) 가톨릭시즘 수용의 사적 개관

현대시를 가톨릭시즘과의 연관 아래 논의하려면 우리나라에 최초로 천주교가 어떻게 전래되었나 하는 문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가톨릭교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역사는 약 이백여 년을 헤아리는데 도입 당시 수많은 박해가 거듭되는 가운데 민중 속에 스며든 가톨릭에 대한 당시의 반응은 다양하다. 성서, 성가가 번역되고 교리서가 출판되었으며, 성당을 중심으로 미사가 집전되는 한편, 민족애의 고취, 자유 평등 사상에 힘입어 인간성 회복을 추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영합하는 과정에서 가톨릭문학 작품이 번역되고 서구음악이 자연스럽게 보급되기도 하였다.

우리가 가톨릭을 수용한 것은 1788년 2월 이승훈(영세명 베드로)이 북경에서 영세를 받고 천주교 교리서, 성화, 십자가 등을 휴대하고 귀국한 것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 시기를 우리나라에 최초로 하느님의 복음이 宣布된 해로 본다.⁶⁾ 이 무렵은 조선조를 풍미하던 주자학이 사대부 계층의 관심에서 벗어나 이른바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풍이 일기 시작한 때다. 이수광을 비롯한 학자들이 『천주실의』 등 서학 관련 서적을 접하게 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지식에 눈뜨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삼라만상의 주재자, 창조주, 영혼의 존재, 영생불멸에 관한 것이다.

아래의 인용문은 이 당시 지식인 집단이 가톨릭에 접근해 간 동기를 알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가톨릭을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내적 요구에 따라 수용한 국면을 알 수 있게 한다.

“몰락한 사대부층의 진보적 지식인들로 이루어진 실학자는 전반적인 하강

6) 박도식, 『순교자들의 신앙』(성바오르 출판사, 1981), p.51.

속에 해체되어가는 조선 후기 봉건사회가 드러내는 모순을 지적하고 그 극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천주교에 접근했고...”⁷⁾

한국의 현대문학 형성 과정에서 가톨릭교가 끼친 정신적 영향이 그후 문학작품으로 형상화되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어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천주당”, “하느님”, “에덴” 등의 어휘를 활용한 것이나 성서에서 빌어온 듯한 비유나 주문 등은 가톨릭시의 일면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톨릭시’라고 명명할 수 있으려면 시 속에 가톨릭 의식이 투철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그 문학성이 고양되어 한국시문학사의 한 위상을 차지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렀을 때를 말한다. 이런 경지의 시가 창작되려면 시인은 성서적 사실에만 집착하지 않고 그야말로 체험의 종교로서 체질화되었을 때만 가능할 것이다. 가톨릭 신앙의 체험은 문학적 양식으로 표상되어야 하고 비로소 가톨릭의식으로 승화되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시를 논할 때 종교시라는 특별한 구별은 하지 않으며 시인의 종교 유무를 문제삼지 않는다. 시에서는 감성과 지성이 동시에 중시된다. 지성의 기능은 종교적 체험을 시적 체험으로 파악하여 일반화하는 데 있다. 즉 지성은 종교적 사상이나 감성의 결합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시’라는 명목을 내걸고 관심 있게 그 시를 관찰하면 저마다 다른 시인의 표현수법, 시적 체험의 공통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 때 자칫하면 표현의 상투성에 전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보통 시인은 종교적 사명감에서 신의 은총에 힘입어 충만하고 悅樂에 쌓여있는 자신의 정서적 상태를 설명하는 차원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종교적 체험을 시적 체험으로 파악하여 일상적이고 관념적인 표현을 일탈하고 리얼한 표현을 얻어낼 때 시의 순수성을 확보하는

7) 정한모, 「기독교 전교시대와 한국문학」, 『한국문학』(1976), 2월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가톨릭시 형성의 바탕이 되는 “가톨릭의식”⁸⁾을 규명하는 일은 시 연구에서 일차적으로 중시되어야 할 일인데, 기존연구⁹⁾가 그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기독교문학으로서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지적했으나 작품에 깊이 천착하여 심도 있는 분석이 가해지지 않은 때문이다.

2) 가톨릭시의 정의

가톨릭시의 상위개념인 가톨릭문화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이인복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무엇을 어떻게’가 모든 예술 구성의 기본조건이라면 사상적 감동을 줄 수 있는 가톨릭적 주제 내용에 문학적 이미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언어표현으로 이루어진 예술을 우리는 가톨릭 문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한편, 최민순 신부는 그의 『문학론』¹¹⁾ 가운데 ‘가톨릭문화와 그 작가 (1)(2)’를 논하는 과정에서 가톨릭예술은 인류 구제의 기관인 가톨릭의 이념과 원칙에 봉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임무는 단지 소극적으로 진리와 최고선에 배치되지 아니함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가톨릭신앙과 적극적인 조화를 맞추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 작품을 가톨릭과 연관지어 논의하려면 (1) 작가가 가톨릭 신앙을 선언하든지 (2) 작품이 가톨릭적 환경을 취재하든지 (3) 작품의 세계관적

8) 가톨릭의식이란 가톨릭의 목표인 속죄, 구원, 부활, 제림 등의 실현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기도하며 하느님과 교감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식은 시인의 내부에 심화되어 작품 속에 가톨릭의식의 시정신이 드러나게 됨.

9) 예컨대 조윤제, 백철, 조연현 등이 기술한 문학사는 어느 것 하나 예외없이 작품의 심도있는 분석에 의해 이론이 도출되지 않고 단편적인 작품의 예를 통해 기독교문학으로서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10) 이인복, 『한국문학과 가톨릭시즘』(우진출판사, 1990), p.12.

11) 최민순, 『영원의 길』(가톨릭출판사, 1997), pp.263~269.

문제에 대한 우주의 해답이 가톨릭신앙과 일치하듯이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가톨릭문학이 자칫 종교적 교훈으로 착각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영원 초월적인 실재 내용을 가시적 예술형식으로 표현하는 데에 비로소 가톨릭문학의 본질이 있다고 한 점이다. 그는 문학이 무엇인지 가톨릭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마추어들이 가톨릭 시인 혹은 가톨릭 소설가로 자처하는 사례는 예술과 아울러 교회에 대한 모독임을 경고하고 있다.

필자는 본고에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논지를 집약하고자 한다. 즉 가톨릭문학은 문학작품으로서의 예술성을 지니면서 가톨릭적 주제를 담아야 하고 가톨릭문학을 논할 때 어떠한 주제를 어떻게 표현해냈느냐 하는 문학 고유의 특성은 물론 문학의 기능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참된 가톨릭문학작품은 그 안에 가톨릭적인 것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가톨릭문학이나 기독교문학이나 다같이 성서를 근간으로 하면서 하느님의 구원이라는 대전제 아래 작품을 창작한다는 측면에서 양자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이다.¹²⁾ 그리고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시를 쓰는 시인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하는 것 역시 그 시인의 표현기법이나 개성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뿐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이들의 가톨릭시는 오세영¹³⁾이 분류한 시의 세 가지 목소리 가운데 '독자 위에 있는 시'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즉 '독자 위에 있는 시'는 일상 삶으로부터 초월해 있는 문제들에 관심을 갖는 시로서 삶의 존재 근거, 삶이 지향해야 될 방향, 어떤 절대 신념 등을 추구하는 시의 관점과

12) 다만 기독교문학과 가톨릭문학을 통칭하여 기독교문학으로도 구별하여 쓰는 것은 종교사적으로 구교(가톨릭교)와 신교(기독교)로 분리되어 현재에까지 이르러 있으며 교리상의 차이에서 어휘나 용어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예컨대, "그레고리안", "묵주알", "성모송" 등이 그러하다. 그런데 본고는 교리상의 차이에 대한 종교적인 물음에 대한 것은 논외로 한다.

13) 오세영, 『말의 시선』(혜진서관, 1988), p.63.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본론의 분석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드러나겠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가톨릭적 시세계 역시 보다 본원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에 도달하고자 하며 인간 존재 탐구 내지 형이상학을 지향하는 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여성시인들의 시와 가톨릭시즘

개화기에 기독교 의식이 잘 표현된 시들은 그 표현기법이 성서와 비슷하고 “면류관” 등 기독교의 어휘를 많이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類의 시를 이광수, 주요한, 황석우 등의 작품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모더니즘과 동양정신을 추구함과 아울러 가톨릭시즘을 지향하는 정지용의 시를 비롯하여 노천명, 구상, 김남조, 이해인, 홍윤숙 등 다수의 시인들이 가톨릭적 주제 아래 작품을 창작하는 경향을 꾸준히 보이고 있다.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고는 홍윤숙, 김후란, 유안진 등 세 여성 시인들을 선택하여 논지를 집약하고자 한다.

1) 홍윤숙의 시와 긍정적인 생사관

홍윤숙(1925~)은 정영자¹⁴⁾의 분류에 따르면 김남조와 함께 한국여성문학사의 제3기에 해당하는 시인이다. 제3기 시인의 특성은 노천명의 뒤를 이어 공허한 수식어의 남발과 감상주의를 절제하고 사회와의 관계를 정립해 나간 특성 있는 여성시의 한 흐름을 보여준 점이다. 홍윤숙은 「낙엽의 노래」를 『문예신보』(1947)에 발표한 이후 195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회곡 「원정」으로 당선되면서 왕성한 작품활동을 한 시인이며 종교시선

14) 정영자, 『한국현대여성문학론』(지평, 1988), p.241.

집 『사과 밭 주인의 집』(1981)을 낸 바 있다.

홍윤숙의 시는 대체로 “여류시의 전통적인 삶의 양상인 감상주의적 에상을 탈피하고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와 삶의 권태감, 도시문명에 대한 비판, 어둠과 삶의 비리를 풍자하면서 목소리 거센 피의 도전을 과감히 발산하고 중년 여성의 허위의식을 신랄히 풍자하는 장식론 등의 특성을 보이는 이른바 한국 여류시인의 지성적 축제의 한 흐름을 주도”¹⁵⁾ 해 온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의 젊은 시절의 시세계와는 달리 인생과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한층 성숙되고 풍요로운 인생철학을 반영하는 시세계를 지향하는 시인의 모습을 확인하게 하는 시가 「내가 떠나는 날은」과 같은 신앙시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적 변모는 그의 깊은 신앙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¹⁶⁾

내가 지상을 마지막 떠나는 날은
 꽃피는 춘삼월 어느 아침이거나
 만산홍엽으로 불타 오르는
 노을 속 해 지는 가을 저녁 무렵이면 좋겠다
 머리맡에 사랑하는 가족들 둘러앉고
 부업에선 한 평생 손때 묻은 낫주전자
 달달달 물 끓는 소리 들리고
 그레고리안 성가 한 소절 잔잔히 흐르는
 향불 사이사이
 슬로 비디오로 돌아가는 한 생애 필름

15) 정영자, 위의 책, p.243.

16)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기까지 이 시인도 누구나 겪게 되는 신앙적 회의와 갈등을 겪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가 “어느날 느닷없이 내게 오신 그 한 분의 경의 앞에 나는 늘 당황하고 주춤거리며 아무런 자신이 없습니다. 쉽게 다가설 수도 멀리 달아날 수도 없는 모호한 위치에서 항상 보이지 않는 투망에 걸려 있는 듯한 구속감을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 그 때문에 마음놓고 돌아다녀도 집을 잃을 염려는 없지 않은 안도감도 있고 그런 저런 방황에서 나의 몇 편의 알팍한 신앙시가 태어난 것이다.”(홍윤숙, 『사과밭 주인의 집』, 「후기」, 성바오르출판사, 1981)라고 언급한 것에서 확인된다.

간간이 끊어지는 흰 벽지 위
 벽지 위에 걸린 예수님 고상
 스프르 문풍지에 바람 자듯 잠들면 좋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묵주알 손에 쥐고
 성모송 외우다 창호지에 저녁 햇살 지워지듯
 그렇게 고요히 지워지면 좋겠다.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의 손을 잡고
 어둡고 긴 묘지의 터널을 지나
 먼 산과 들을 건너 먼저 간 이들 기다리는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세상의 덧없는 이름 허물처럼 벗어놓고
 살아서 무거운 빛 죽음으로 칭산하면
 서로 떠날 영혼의 나그네길 가벼우리라
 그 길 함께 동행하실 분도 계시니
 낮선 길도 무섭지 않고.

머지않아 떠날 천국의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도 나의 지상의 삶은 분주하다

- 「내가 떠나는 날은」 -

위의 시는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인생을 터득한 경지에 도달한 시인의 모습이 역력히 반영된 시이다. 그래서 시적 화자는 인간에게 숙명적으로 다가올 죽음을 초연한 자세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죽음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학의 주제로서 큰 비중을 차지해오고 있음에 틀림이 없으며 작가의 생사관에 따라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그런데 가톨릭적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에 이르는 것이며 삶은 죽음으로써 완성된다.

가톨릭을 신봉하는 시적 화자의 죽음은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되어 있으며 기존의 유교적 관념에 의한 죽음관과는 사뭇 다르다.¹⁷⁾ 즉 유

17) 박두진의 「묘지송」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즉 시적 화자는 기독교인

교적 관념으로는 죽음은 삶과 완전히 분리되어 삶의 저편,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곧 슬픈 이별이고 어둡고 암울한 이미지를 수반한다. 그런데, 가톨릭에서 삶은 비로소 죽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며 죽어서 천국에서 만난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수반한다. 그러기 때문에 가톨릭문학 혹은 기독교문학에서 죽음은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이다.

위의 시에서 시적 화자는 죽음이 오는 날을 “꽃피는 삼월”(1연 2행)이거나 “노을 속 해 지는 가을”(1연 4행)처럼 상서로운 계절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믿음이 두터운 신자답게 죽음을 준비하는 분위기는 “머리말에 사랑하는 가족들”(1연 5행)이 있고 “그레고리안 성가 한 소절 잔잔히 흐르는”(1연 8행) 화기에애한 분위기이다. 그래서 그에게는 죽음의 길 곧 “낮선 길이 무섭지 않고”(1연 25행) “영혼의 나그네길 가벼우리라”(1연 23행)고 노래한다. 그는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의 손을 잡고”(1연 17행) 천국으로 갈 것이므로 “천국의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2연 1행)서 그의 지상의 삶은 분주하다. 그리고 그 분주함은 아마도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롭게 살기 위한 데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그래서 이 시는 죽음을 소재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 할 것인가를 시사하는 아름다운 한 편의 노래가 된다.

이 시를 관류하는 가톨릭 정신은 시 전반에 자주 쓰인 가톨릭적 어휘를 통해서 더욱 뚜렷이 부각되었다. 구체적으로 “그레고리안”, “예수님 고상”, “묵주알”, “성모송”, “천사”, “천국의 문” 등은 그 적절한 예이다.

2) 김후란의 시와 고통의 의미

김후란(1934~)은 「오늘을 위한 노래」(《현대문학》, 1959.11), 「문」

으로서 생사관을 가지고 죽음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이 시에서도 시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밝고 긍정적이다.

(《현대문학》, 1960.4), 「달팽이」(《현대문학》, 1960.12)가 추천되어 등단한 이후 인생의喜怒哀樂을 유미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시로써 형상화했으며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 세련된 면을 보이면서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응시와 탐구, 생명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존재의 가치를 성찰하는 일에서 출발한 그의 시는 절대적 미로 가는 시련과 단련의 길로 이어진다.

아래에 인용하는 시는 가톨릭에서 의미하는 고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음미하게 하는 작품이다.

고통의 끝은 어디라 하더이까
 처음부터 끝까지
 칠후 어둠 속 한 가닥 불빛 따라
 오직 사랑과 순명으로
 믿음의 길 지켜내신
 어머니

그분 오직 그 한 분을 위하여
 아니 모두를 위하여
 뼈를 깎는 수난과
 불기둥에 매인 고통을
 함께 나누시더니
 끝내 주님과 저희들 사이에
 무지개 다리 놓으신 분

빛으로 가득한 어느 하늘도
 이보다 더 밝고 부드러우러
 연초록빛 신록
 은은한 장미향기로 다가오시는
 오월의 그리움
 성모님이시여

이제야 그 손길 뜨거이 감득하오니
 무릎 꿇은 저희들
 이 손을 잡아 주소서
 일으켜 세우소서
 흩어진 인심도 모아 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눈길 돌리는
 겸허한 정신 깨우쳐 주소서

고통의 못자국 가슴에 새긴
 구세주의 어머니
 저희들의 잠어머니
 오늘밤 촛불 밝혀 든,
 눈물 흘리는 이
 품어 안으소서.

- 「이 손을 잡아 주소서 -성모성월애」 -

위의 시는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존재, 성모마리아의 본질을 부각시켜 시로써 형상화하고 있다. 성모마리아는 선택받은 여성으로서 신음하던 전체 여성을 대표하여 하느님 구원의 인류 역사 속에서 주역을 담당하였으며 구약에서 보이듯이 여자가 남자의 예속물이 아니라 떳떳한 동반자로서 상호존경과 사랑의 토대 위에서 세계를 건설해 가는, 동등하게 존귀한 하느님의 자식, 소중한 인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다.¹⁸⁾ 이 일은 로마의 식민치하, 헤로데왕의 학정 아래에서 설움 받던 온 백성이 구세주 강림을 몽매간에 갈망하던 시기에 겸손한 유다의 여성 한 사람이 온 백성의 신음과 고통을 홀로 수렴하는 자세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함으로써 실현된 역사 속의 사건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주소서.”(루가 1 : 38)라고 순명의로 응답한 겸손한 한 여성의 이 한마디가 하느님 성부의 뜻을 완성하게 하였고 하느님

18) 이인복, 『성서의 여인들』(우신사, 1989), p.7.

성자 구세주의 육화 강생을 가능하게 하였고 하느님 성령의 능력을 인류의 역사 속에서 현현케 하는 동력과 추진력이 되었다.¹⁹⁾

이 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어휘 “고통”은 성모 마리아의 고통²⁰⁾을 뜻하며 이 시의 핵심어이다. 성모마리아는 고통을 순명으로 이겨낸 분이므로 제1연에서 “오직 사랑과 순명으로/믿음의 길 지켜내신/어머니”라는 표현이 가능하다. 제2연에서 성모마리아를 “무지개 다리 놓으신 분”으로 비유한 이유는 예수의 죽음이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성모 마리아

19) 위의 책, p.8.

20) 성모 마리아의 고통은 첫째, 처녀가 약혼한 남자로부터 간음한 여인이라고 오해를 받은 것(마태 1 : 19), 둘째, 극빈의 빈 손으로 한 몸 누울 방이 없이 마굿간 안에서 지존의 아드님을 낳은 점(루가 2 : 7), 셋째, 율법에 따라 출산 후 40일에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갔을 때, 품에 안긴 아기가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어미의 마음이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이라는 몸서리치는 예언을 시므온으로부터 듣고(루가 2 : 34~35), 그후 30년 이상이나 그 예언의 실현을 두려워하면서도 마음 깊이 그 구원의 순간을 기다렸어야 한 것, 넷째, 잃었던 예수를 성전에서 찾자 예수의 편찬을 받고 오래 그 모든 일을 마음 속에 간직하다가(루가 2 : 49~52) 수십 년 구원의 순간을 기다린 것, 다섯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술이 떨어졌다고 아들에게 고했을 때 “그것이 저나 여인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요한 2 : 4)라고 면박당한 것, 여섯째, 요셉을 잃고, 아들 예수조차 어미를 떠나 버리자 홀로 철저히 버려졌던 것, 일곱째, 예수가 군중 가운데서 강론하고 있음을 듣고 면회를 청했다가 “누가 내 어머니이나?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이다”(마르 3 : 34~35)라고 말씀하시어 푸대접을 받은 형편이었으나 내심 깊이 예수 말씀의 진의를 새겨 인식한 것, 여덟째, 예수가 계매마니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할 때 장차 그가 치르게 될 수난을 묵상하며 혼자 흐느낀 일, 아홉째, 예수가 잡히어 가시관을 쓰고 가죽채찍으로 맞아 살점이 저며져 떨어지고 온 전신에 피땀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던 고통, 열번째, 십자가를 지고 끌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예수를 만났을 때 예리한 칼날에 가슴이 찢겨 위로 한마디도 못한 고통, 열한번째, 십자가에 매달려 숨을 거두었을 때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 무릎에 누이고 피에 엉긴 머리를 감싸안고 흐느낀 일, 열두번째, 부활한 예수가 그의 어미를 제쳐놓고 창녀였던 여자에게 발현한 소식을 듣고 아들이 행한 일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육정의 섭섭함을 삭여야 했던 고통 등이다. 이 세상에 여인으로 태어나서 이보다 더 슬픔을 겪은 여성은 마리아 외에는 더 없을 것이다.

이는 그 중간에서 모든 고통을 대신 감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간자 역할을 한 성모 마리아를 다리에 비유하되 철로 된 다리가 아니라 무지개 다리로 표현하였으며 그것은 긴 고통의 터널을 뚫고 나왔을 때만 보이는 희망의 표상이다. 제3연에서 오월은 성모성월이므로 시적 화자는 성모를 그리워하고 있다. 제4연에서 “이제야 그 손길 뜨거이 감득하오니”는 시적 화자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모 마리아의 존재의 의미를 완전히 깨달았으므로 그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겸허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5연은 십자가에 못박혀 죽어야 했던 예수, 그리고 그렇게 아들의 죽음을 감내해야 했던 성모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진실로 참회를 하는 이들 즉 “눈물 흘리는 이”를 품어 안기를 청하고 있다.

한편, 이 시는 기도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이 시를 성당에서 읽으면 그대로 기도가 되는데 이런 점에서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나 김남조, 이해인의 시편들, 그리고 종교가 다르기는 하나 한용운의 「님의 침묵」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 시는 참담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시인의 간절한 소망과 의지가 반영된 시로서 자신이 살아가는 방법을 가톨릭적 신앙 안에서 찾고 있음을 알게 하는 시이다. 이 시는 오늘날 이 사회가 부주리와 부정, 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딱한 현실임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위와 같은 생활을 한다면,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온갖 혼란과 악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임을 확인하게 하며 시인은 그러한 날이 도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3) 유안진의 시와 이웃사랑

유안진(1941~)은 「달」(《현대문학》, 1965.4), 「별」(《현대문학》, 1966.8), 「위로」(《현대문학》, 1967.8)로 등단한 이후 여성 특유의 아늑하

고 섬세한 서정시를 많이 써 왔다. 그의 시세계는 첫 시집 『달하』(조광출판사, 1970)에서 드러나듯이 동양적인 淨澄한 정서의 바탕 위에 기독교적인 신앙이 조화를 이루며 신을 갈구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완성을 希求하는 특징을 가진다.

아래의 시 「아기별을 찾아서」 역시 가톨릭적 신앙시로서 그 구성이 매우 독특하다.

한 젊은이가 부처를 만나러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중년에 이르러
노스님 한 분을 만나 부처가 계신 곳을 물었다.

부처님은 시방 당신 집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니 당장 돌아
가지 않으면 떠나 버리실 거라는 스님의 말에 그는 그 길로
수십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니 늙어 꼬부랑할머니가 된 노모가
맨발로 달려나와 그를 얼싸안았다.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은 그는 그토록 찾던 부처가 바로 자신의
노모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구세주 아기신(神)의 탄생을 알려주는 아기별도 먼 데서 찾지 말라.
나의 집 나의 이웃이 아기별이 뜨는 곳이라고.

방배동성당 조(趙)도미니꼬 본당신부님의 미사강론이었다.

- 「아기별을 찾아서」 -

일종의 액자소설처럼 방배동성당 조도미니꼬 본당신부의 미사강론을 액자 속의 내용으로 설정하여 시의 주제로 택하고 있는 이 시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독자의 유추가 필요하다. 즉 “구세주 아기신(神)의 탄생을 알려주는 아기별도 먼 데서 찾지 말라/나의 집 나의 이웃이 아기별이 뜨는 곳이라고”(4연)라는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심오한 뜻을 음미해야만 한다. 가까이 있는 자신의 노모가 곧 부처임을 깨닫게 되는 불교에서의 설법이나 구세주는 곧 험벗고 굶주리고 있는 이웃사랑이라는 천주교의 강론에서 독자는 두 개의 다른 종교 사이에 내재하는 공통적인 내용을 인식하게 된다. 그런데 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음을 시로

써 형상화한 것이라고 본다.

시 쓰는 일은 무엇보다 시인이 사물이나 자연과 어울려서 인식을 겨냥하는 일인데, 이렇게 인식을 겨냥함으로써 시인과 사물의 내면 사이에 새로운 매듭이 마련될 뿐 아니라 새로운 교응이 이루어진다. 이 시는 부처가 있는 곳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가까이 있는 자신의 노모임을 깨닫게 하고 구세주 아기신의 탄생을 알려주는 아기별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이웃에 있음을 깨닫게 한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일이며 이러한 깨달음은 독자의 몫이기 때문에 시인은 극히 객관적이고 담담한 입장에서 산문체의 시형을 통하여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의 깨달음은 시인이 시로써 노래하지 않았다 해서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깨닫는 자만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은 단시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하여 얻는 결과이다. 그것은 “한 젊은이가 부처를 만나러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중년에 이르러/ 노스님 한 분을 만나 부처가 계신 곳을 물었다.”(1연)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본당신부님의 미사강론이었다.”(5연)라고 극히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 시의 매력이다. 독자에게 默想할 여지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독자에 따라서는 그런 경지에 도달했을 때 자신이 구원됨은 물론 남을 구원하게 되고 그 결과 이 사회를 정화하는 일에 참여한 셈이 된다. 그만큼 이 시에 대한 해석은 무한히 열려 있는 것이며 이 시의 묘미는 여기에 있다. 한편, 이 시의 메시지는 김춘수가 자신의 시창작은 자기구원에 목표가 있다고 한 말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성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고 이 사랑은 무엇보다도 이웃사랑일 터인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쉽지 않다. 우리 인간은 믿음이 아무리 깊어도 가끔 회의적일 때가 있으며 생활 속에서 자기가 믿는 훌륭한 일들을 실천한다는 것은 진실로 어렵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가까이에서 찾지 않고 먼 데서 찾기 때문이며 아주 작고 하찮은 데서부터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유안진의 가톨릭시는 오랜 인생의 깨달음에서 터득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데 「성당 가는 길에서」(시선, p.210)도 “인생을 너무 알아/슬프고 슬플 때마다/인생을 모르는 어린 신(神)을 생각한다”(1연 1행~3행)고 토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인생을 너무 알아 슬프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보지 않고는 느낄 수 없는 것이다. 성당 가는 길에서 시적 화자는 자신을 성찰하며 어느 새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새끼짐승 한 마리”(2연 5행)가 되어 “시건방진 행동거지/복잡하기 짝이 없는 말과 생각까지/단순하고 투명하게/고분고분 곧이곧대로”(2연) 하겠다고 다짐한다.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3연 4행)는 것은 順理에 맞게 살겠다는 것이다. 강물은 절대 거슬러 흐르는 법이 없다. 이 사회가 무질서와 혼돈에 빠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순리에 맞지 않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시인은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적이고도 평범한 이 사실을 담담한 문체로써 독자들을 일깨우고 있다.

4. 맺음말

이상에서 논의한 바, 홍윤숙, 김후란, 강은교 등 한국의 여성시인들은 작품을 통하여 가톨릭 신앙의 깊은 경지에 도달했을 때 얻게 되는 감동적 순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독자로 하여금 이것을 간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영혼의 정화를 느끼게 하고 있다. 이들의 시는 잔잔하게 혹은 뜨겁게 인간의 영혼을 풀어내는 데, 그것은 인간의 진실과 투명한 영혼을 지키기 위한 시인의 자세에서 나온 결과이다. 그리고 독자들의 신앙의 有無를 떠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유를 해명해 주기도 한다.

홍윤숙은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죽음을 가톨릭적 신앙 안에서 매우 밝고 긍정적인 의미로 수용함으로써 살아있는 사람의 삶의 가치와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있다. 김후란은 고통의 의미를 시로써 형상화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감내할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다. 그의 시는 참담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시인의 간절한 소망과 의지가 반영된 시로서 독자들로 하여금 살아가는 방법을 가톨릭적 신앙 안에서 찾게 한다. 유안진은 이웃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가톨릭 신부의 강론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독특한 표현형식을 통하여 전달하고 있다.

결국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경험에 속하는 신앙생활 특히 교회를 통한 종교생활은 교리에 비추어 자아성찰을 피하게 하고 이것을 문학이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여성시인들은 시로써 가톨릭 신앙과 적극적인 인 조화를 이루어 실제 생활과의 접목을 꾀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의 시가 가톨릭예술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세계 즉 “영원초월적인 실재 내용을 가시적 예술형식으로 표현”²¹⁾하는 데에 매우 근접하고 있다는 데서 평가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들의 시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독자 위에 있는 시’로서 의미가 있다. 즉 ‘독자 위에 있는 시’는 일상 삶으로부터 초월해 있는 문제들에 관심을 갖는 시로서 삶의 존재 근거, 삶이 지향해야 될 방향, 어떤 절대 신념 등을 추구하는 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시는 보다 본원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에 다다르려고 하므로 존재 탐구 내지 형이상학을 지향하는 시가 된다.

그런데 시에 종교적인 사상과 깊이를 담으려 할 때 흔히 관념시에 머물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들은 그 특유의 표현기법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시사상 이들이 쓴 가톨릭시가 부여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우선 이들은 사상의 깊이를 확보하고 자신들의 내면세계를 기도문

21) 최민순, 앞의 글.

의 형식을 빌어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 여성시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할 것이다. 이들의 가톨릭의식은 개인 차원을 넘어서서 인류를 구원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성서가 인간에게 본질적인 가치관 형성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들의 성서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시적 형상화는 파토스에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 참고문헌

- 김용직 외, 『한국현대시연구』, 민음사, 1989.
- 다께다 도모쥬, 이석현 역, 『문학과 인생』, 성바오르출판사, 1980.
- 박도식, 『순교자들의 신앙』, 성바오르 출판사, 1981.
- 박철희, 『서정과 인식』, 이우출판사, 1981.
- 오세영, 『말의 시선』, 해진서관, 1988.
- 윤호병, 『문학의 파르마콘』, 국학자료원, 1998.
- 이인복, 『문학과 구원의 문제』, 숙대출판부, 1982.
- _____, 『죽음과 구원의 문학적 성찰』, 우진출판사, 1989.
- _____, 『성서의 여인들』, 우신사, 1989.
- _____, 『한국문학과 가톨릭시즘』, 우진출판사, 1990.
- 정한모, 「기독교 전교시대와 한국문학」, 『한국문학』 2월호, 1976.
- 최민순, 『영원에의 길』, 가톨릭출판사, 1997.
- 한국가톨릭시선 편집위원회, 『한국가톨릭시선』, 들숨날숨, 2000.
- 덜리히P. Dilich, 김경수 역, 『문화의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1981.
- Eliot, T.S. *Notes towards the definition of culture*, Faber & Faber, 1962.
- Döblin, A. *Unser Dasei*, Walter Verlag, 1964.
- Sartre, J. P. *Was ist Literatur*, Rowohlt Verlag, 1963.

Abstract

Catholicism reflected in poems of the Korean modern women poets

Kim, Hyo-Joong

As was discussed above, the Korean women poets display the ecstatic moments of emotional experiences that can be reached through the personal contact with profound Catholic belief. This again introduces readers to the second-hand experience of spiritual purification. Their works of art are stories of spiritual human beings with full of hearts both tranquil and passionate, which come from steadfast attitude in defense of human truth and spiritual transparency. This explains the sympathy they gain from the readers of different time and space, and even of non-Catholic beliefs.

Religious life constitutes one of the most important human experiences and the practicing religious teachings in church in particular prompts its believers to conduct self-examination. Obviously the self-reflection leaves marks on the works of art as is the case with our female poets in question who harmonize Catholic belief with their poems thus fulfilling their duty as Catholic poet.

What is more significant is that their poems are appreciated in terms of the fact that they strive for “the realization as aesthetic form of existence of spirituality and eternity” which is an ultimate destination of arts in the Catholic tradition. Therefore these works of art can be said to have a ‘voice above readers’ among the three different kinds of voices in poetry. The poems that have a ‘voice above readers’ concern problems that transcend routines of daily life searching for reasons, directions, and absolute faith of life. With the aspect of intrinsic and ideological

nature, these are metaphysical. The common drawbacks of religion-oriented poems that they usually end up with extreme abstractions seem to be overcome in their works by unique expressive skills.

The Catholic poems by these women writers acquire a solid ground in the Korean poetry with their profundity and frankness in the form of prayers. Their Catholicism is not only a source of personal salvation but also an offering towards the development of of the Korean women poetry.

key words : the third world, catholic consciousness, virgin Mary, poem above the reader

■ 위 논문은 2월 15일 투고되어, 3월 31일 심사 완료 후, 4월 1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